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69. 둘째 짐승의 행사

2014. 04. 2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두 번째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계시의 일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13~15]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 지난 시간에 12절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나라가 거짓 선지자로 설명되었는데, 그것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다음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답: 그것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계시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적을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으로 표상된 교권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플라나오”인데요, 길을 잃게 한다, 또 빛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지요. 명령하게 하고 집행하게 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우상은 땅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대리하는 세력이 되겠지요.

2.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사실을 그냥 죽 설명한 것인데, 그 실제적인 상태나 역사적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그러나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사실의 현실적 실상을 알아보아야 하겠지요.(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짐승입니다. 교권국입니다. 땅에서 나온 나라가 교권국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 정책이 그들과 동조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브로 만하탄이 쓴 책 “바티칸 살인자”라는 책에서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현재 땅에서 일어난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거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교권국을 받들도록 정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장래 일이니까 전개되는 역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땅 짐승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적을 행하는 것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권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의 모양으로 임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적을 많이 행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3.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 짐승이 성령의 역할을 모방한다는 말씀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바다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13장의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는 종교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예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했지요. 이사야 14장12~1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나팔 사건을 말할 때에도, 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성부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바다짐승에게 자기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구절을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을 꽤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구절을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계시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셔서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은 죽은 것같이 되었다가 낫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방하는 모습이고요, 42개월 일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그냥 햇수로 3년 반인데, 예수께서 공중봉사를 하신 기간을 흉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은 성자 예수를 모방하고 땅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경배할 것이니까요. 여기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인데, 요한 4장 23,24에 나오는 예배라는 말과 똑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속이는 세 존재는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해서 마치 자신이 참으로 예배를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속입니다. 그중에 용과 바다짐승을 경배하도록 세상을 속이고 설득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땅 짐승입니다.

4. 아,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이 이런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지 교인들은 성경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단의 영의 역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사실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어봅시다.

[마24:23~25]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했지요. 다음 말씀 또 봅시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들은 애청자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주도할 세력이 바로 성령 흥내를 내는 거짓 선지자인 땅 짐승으로 표상된 국가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엘리야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선언한 엘리야의 선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도 염두에 두었지요. 그것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속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치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 것처럼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도록 감동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성령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합니다. 것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직접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과 바다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5. 아, 참 그러네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에게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군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시지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있지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주도하는 분이 성령이시지요. 당연히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단독으로 성령께 예배하라는 말씀은 없어도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한 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예배할 때에는 성령께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아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조직으로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 14절을 읽어봅시다.

[계13: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이적행하는 능력을 짐승을 위하여 짐승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바다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특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다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초로 예수를 믿도록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성경의 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것은 헛일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나은 것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잘 설명했습니다.

[고전15:13~19]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 헛되다고 했지요. 땅 짐승도 이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하려면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이나 첫째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없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올리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것처럼 이 땅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

은 바다짐승을 위하여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웁니다.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기관을 통하여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은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떤 조직체입니다.

6. 그것이 조직체라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체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후에 교회가 조직되었고, 교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짐승이 세운 우상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용과 바다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보기에는 교회의 형태일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으로 예수를 믿고 경배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는 것처럼 이 우상은 짐승과 용을 경배하여 복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계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먼저 끝 부분 말씀을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한다고 했지요. 벌을 받는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경배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경제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 예언한 말씀대로 이 우상은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할 것인데,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나타내는 교회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6장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다니엘을 옴아 넣기 위하여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30일 동안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상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변개할 수 없는 메데와 바사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다 사자 굴에 던져 넣어 죽이게 하는 형벌을 제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렸지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그런 법을 제정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일당들이 그 사자 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13장의 땅 짐승도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 법은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계13:16,17]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입니다. 그 유명한 666이라는 숫자 이야기이지요. 이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권을 상실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이것을 경제권을 박탈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오바마 케어와 맞물려서 배리칩을 받아야 한다면 배리칩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이렇게 표를 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짐승의 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느라고 몇 이든지 죽이게 한다는 말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생사문제라는 뜻이지요. 이 중심에는 짐승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실체의 전면에서 내세워서 실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실상에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곧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어떤 조직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처럼 이 우상을 통하여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7. 이 말씀을 보니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먼저 모든 자라고 하고는 그 모든 자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라고 말했군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답: 글썄요. 모든 자가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를 열거하여 인류 사회 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기 전에는 신분이 구별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표를 받는 데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 부자, 자유한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 가난한 자, 종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데는 예외가 없고 특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표는 오른 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사람의 신체의 활동 상황을 대표하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정신적 활동을 대표하고요. 그러니까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표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기도 한 그런 표이지요. 이 표는 정신적으로 그 의미를 색이면서 받아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면 오른손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체활동으로 그 표가 나타내는 사상을 실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면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고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표를 받아야 하겠지요?

8. 글썄요?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들은 그 표를 받지 않겠지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표를 받겠습니까. 그때는 또 옛날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듯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답: 글썄요. 지금은 땅굴 속에 있어도 찾아내는 전자 제품들이 있는데, 카타콤에 숨는다고 생

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권이 없으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살아남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9. 목사님,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 이 표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해석하면 실제로 그 표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면 알 수 있지요. 알아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런 위급한 시대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구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대강대강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표의 실상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이름이 어떤 수치(數値)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둘째로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대로 짐승은 나라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대로 그것을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0. 예, 목사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과 짐승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짐승의 표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속지 않고 올바를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